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령 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587 호 현대불교  
서기 2006년 7월 19일(음력 6월 24일) 수요일  
법공양 페이지

# 29

## 내 한마음에 모든 것을 맡겨 놓고 불 밝혀야!

### 칠석과 백중에 대해서

**문** 선원에 와서 법당에 삼 배를 드리고 도량 밖에서 간접한 마음으로 탑돌이를 할 때마다 문득문득 스님께서 마음으로 새겨 놓으신 "칠석불은 만중생의 불을 끊어지지 않게 이어가 주시고 서천국의 아미타불은 그저 모든 중생들을 깨닫게 하소서."하신 그 뜻이 과연 뭐가 하고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칠석과 백중을 해마다 지내듯이 끊임없이 생각하고 말하는 가운데 정말 이 마음의 도리를 알아서 벗어나라고 하신 부처님의 그 자비하신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 언제나 한결같이 말씀해 주셨지만, 올해 또 칠석과 백중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어떠한 마음을 내야 저 자신과 조상님들의 마음을 밝혀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답** 칠석은 살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낸다고 합니다. 또 백중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산 사람 죽은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닙니다. 칠석이다 하면 칠(七)은 우리 몸 자체와 마음 자체를 말하고, 석(夕)은 그 마음이 깊은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밝힌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형성된 날이나 죽는 날이라고 해도 되고, 아침 저녁이라고 해도 됩니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불을 켜거나 끄거나, 이런 것이 바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현재이듯이, 즉 말하자면 아침에 불 켜는 그 마음이나 저녁에 불 끄는 마음이나 같이 뛰어서 마음을 밝히려는 뜻입니다.

아침도 현재 내 마음 속에, 저녁도 현재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거. 내가 항상 이런 말을 하죠. 전자와 전자가 한데 합쳐져야 불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아침이나 저녁이나 없는 마음, 그 마음에서 발견해서 밝히면 칠석(七夕)이 칠성(七星)이 된다고 소립니다. 여러분이 그 도리를 모르면 칠석이고 그 도리를 알면 칠성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칠석날은 내 마음을 모아서 과거 미래를 한데 합쳐서 내 마음에 깨달음을 밝게 가져오는 즉, 광력을 자체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중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한해서는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견우와 직녀도 그렇게 만나지 못해서 애를 쓴다고요. 일 년에 한 번씩 만난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일 년에 한 번이라 하는 것도, 여기서 생각할 때는 일 년이지만 그 별에서 생각할 때는 일 초, 하루를 뜻합니다. 즉 말하자면 여기에서 그 수명이 일 년이면 거기서는 하루라고 볼 수 있겠지요. 비유를 한다면, 아무튼 여기서 지어 놓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어 놔도 해답이 되게 지어 놓은 것입니다. 아무리 표현이다, 방편이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 년, 하루 이 것을 비유하자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루 동안, 24 시간 동안에 한 번 만나는 것도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남이 말입니다.

그러면 일체 사생(四生) 모두가, 천차만별로 돼 있는 모든 만물만생이 다 견우 직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이 있으면 인간이 있으면 모두가 이렇게 인연이 돼야 생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납득이 안 가십니까? 이 모두가 인연이 없으면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발전도 될 수가 없고, 창조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으면 '칠성이 된다. 칠성 부처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칠성 부처님이 명을, 또는 생산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소원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깨달은 사람이라야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칠석(七夕)날은 칠성(七星)이 되기를 원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밝힌다 이런 겁니다. 내 마음을 밝히지 않는다면 백중에 견질 수가 없어요. 왜 묵련 존자를 비유해 놔왔어요? 묵련 존자가 그 깨달음을 가지고도 열반의 구경 경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는 지옥문을 열지를 못해서 어머니를 건지지 못했어. 그래서 다시 가서 부처님한테 구하니 다시 정진하라고

그러기에 다시 정진해서 지옥문이 스스로 열렸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조상님들의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칠석날은 항상 나한테 숨어 있는 그 마음, 깊숙하게 들어 있는 그 마음을 발견해서 불을 켜라, 밝혀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깨달아야만, 칠석에 깨달아서 칠성이 돼서 그 마음의 불을 밝힌다는 뜻이죠.

백중은 아침과 저녁 이것이 한데 모아진 한마음입니다. 한마음이기 때문에 생각이 없는 중생이나 생각이 있는 중생이나, 산 중생이나 죽은 중생이나 할 것 없이 일체 만물만생의 모든 영령들을 견질 수가 있는 문이 열린다 이런 뜻입니다. 문이 열리는 것도 깨달음에 의해서 문이 열려야 견질 수가 있지, 깨달음에 의해서 문이 열리지 못하면 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쭙하면 백중입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백중을 그냥 돈이

없이 그냥 출렁 벗어날게끔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칠석도 아침 저녁이 한데 모아져서 공해 버렸다. 공했으면 그 공한 도리를 알 때는 그냥 무(無)다. 무조차도 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도리를 알았을 때는 바로 벗어나는 것입니다.

### 어떤 것이 정법인지요?

**문** 안녕하십니까? 스님, 저는 불교에 관심 많은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열반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지계 하고 열반 하면 극락왕생의 품위가 높아지고 청정한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참모습, 진짜 모습을 보려면 열반을 열심히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스님께 질문을 드렸더니 정법은 그것이 아니라면서 다른 수행 방법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배운바가 부족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알지도 못하고 불교에

의 마음을 보라 이겁니다. 글씨가 나를 보고 내가 글씨를 보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는 글씨 써 놓은 대로 이름을 가지고 상징하지 말고 그 글씨 속에 있는 거,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를 알아야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수레를 거쳐서 한번 돌아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치라야 모든 것이 부처님 법 안에서 돌아가는 그 공한 이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냥 무념무상 하면 되나요?

**문** 가장으로서 살아야하려면 의식주가 필요한데, 그저 그냥 무념무상만 생각하면 되나요? 과연 무념무상은, 예를 들어 원초적인 원자도 아닌, 그러나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무도 아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유자재인가? 쉽게 잘 설명해주세요. 수행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요?

## 칠석날은 칠성이 되기를 원하며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밝힌다

나 갖다 놓고 영령들을 어떻게 해 달라고 그러면 되는 줄 알지 마십시오. 스님들의 힘을 빌려서 한다면 하려는 스님들도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그 상대방에서도 내 마음을 알아야 한마음이 돼서 견져지지,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돌로 보고 그렇게 보니까 이 봉투에다 돈이나 넣어서 이름이나 써서 갖다 놓으면 영가가 천도되는 줄 아는 데 이런 생각은 아예 마시고요.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내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과 내 육의 조상들과 돌이 아니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자비라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과 내 부모들의 조상 마음과 돌이 아닌 까닭에 항상 내 한마음에 모든 것을 맡겨 놓고 마음을 내는 것이 그게 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조상들의 마음도 내 한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모든 게 탄생이 되든지 승천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음 자체를 깨달아야만 된다.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항상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항상 부모와 일체제불과 모든 일체 중생이 하나 마음 속에 있다. 한마음 속에서만이 빛어진다. 들이고 내는 모든 것이 전체 한마음에서 들이고 내진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칠석에도 그 마음을 내 한마음으로 하나 되게 놓는다면 돌로 봐지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면 바로 부모들이 자기가 되는 겁니다. 자기 속의 자기 마음을 훤히 다 알기 때문에, 부처님도 같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툭 터져서, 삼시간에 물리가 터져서 승천을 하시는 겁니다. 칠석이 그런 마음의 도리지, 물질은 아무리 많이 갖다가 산더미같이 쌓아 놓는다 하더라도 마음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렇게 공한 도리를 모르다면 아예 불도 밝게 일어날 수가 없겠니와 조상들도 견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서 하도록 하시고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야하는데도, 아까 견우와 직녀 얘기 했는데 그게 납득이 됐습니까? 여러분이 다 견우와 직녀예요. 띠 띠, 띠 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견우와 직녀고, 견우와 직녀는 그렇게 울고 그렇게 사연이 많지만, 그 만남도 즐겁게 만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즐겁지 못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고 말입니다. 그런 그렇게 해 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견우와 직녀 속에서,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견우와 직녀 속에서도 벗어나게. 모두가 나 아님이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고 내 이름 아

대해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정법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우리가 불법을 배운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불자가 돼서 불자 노릇 하는 게 자랑거리가 아니고 진짜 불자 노릇을 어떻게 해야만 부처님의 참다운 제자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런 거 보고 그대로 쫓아가서는 안 돼요. 지금은 너무 쇠퇴해서 있어요. 옛날 부처님 당시, 유마힐 거사가 있던 당시, 또 조사들이 있었던 당시, 달마 대사가 헤가 스님 모두 이런 분들이 있던 당시에는 절대로 기강이 죽지 않고 쇠퇴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가르치지도 않았거든요. 사람이 말을 해서 그 말 한마디가 한데 떨어지게 한다면 부처님의 제자라도 취급을 안 했어요.

이 마음속에 수레가 있다면, 이게 쉬지 않고 돌아가는 수레라면 반드시 그 수레에 한 바퀴 둘러서 책정을 해서 말이 나와야 그게 정법인 겁니다. 그 수레를 거치지 않고 그냥 하는 말은 사사로운 샛된 말로 취급을 하죠. 그렇게 연결이 되질 않고요, 또 그 수레바퀴에 한번 둘러서 나온다면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 있고 이 세상하고도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가설이 된 그 자체가 바로 수레거든요. 수레, 이 지구가 돌아가는 수레처럼. 그렇기 때문에 다 통성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돌에 올라 놔도 산다고 하죠.

사람이 죽으면 송장 남겨 두고선 모두들 그 송장을 보고 울고 그럴 때에 자기가 자기 송장을 내려다보고 '참, 저렇게 곱게기인 것을 보고 우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씩씩스럽게 돌아서는 그것을 죽어서만이 알아서는 안 되죠. 살아서 알아야 되고, 살아서 알고 살아서 터득을 해야지 그게 구경경지에 이른다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공덕이 없다 하는데, 그것은 한마음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죠. 한마음이 돼야 공덕이 되는 거지, 공심과 공용과 그 모두가 한데 합쳐서 이렇게 돌아가야지 이게 공심으로 화하지, 만약에 이게 자기 개별적인 어떠한 생각으로서 돌아간다면 이 건 공심이 될 수가 없잖아요. 천지가 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법이다 사법이다 하기 이전에 그 걸 다 놔 버리고 못났든 잘났든 문이 아닌 문이든 한번 앞드러져 보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큰 경험이며 보배를 크게 이루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나 남의 말로 팔만대장경에 이렇게 해 놔니까 요렇게만 가야겠다. 이런 모두가 착입니다.

예전엔 문대가 있고 등잔이 있고, 기름이 있고 심지가 있고 성냥이 있고 손이 있어야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손도 사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손이 들어지지 억지로 들어지나요? 그리고 또 우리가 책을 본다 하는 것도 글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마음을 담습니까? 글자를 쓸 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글을 쓴 거지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글을 쓰나요? 그래서 글을 보지 말고 그 글 속의 백



그림 · 최주현

**답** 지금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냥 무념무상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고 분별이라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생각하되 힘이 없이 해라 이겁니다. 힘이 없는 줄 알이라 이거예요. 맥의 육체 속에도 수많은 생명들이 들어 있죠? 그러면 더불어 같이 생각을 했지 왜 당신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까, 공(空)했는데. 그렇죠? 그럼 공체(公體)로서 공심(公心)으로서 생각한 게 아닙니까? 자기 혼자만이 그 생각을 한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다, 자기가 생각했다' 이런 마음 자체를 떼라 이겁니다. 그냥 공심에서 공 생각을 한 거죠. 공심으로 한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생각을 했다는니 안 했다는니 이런 이유가 불을 자리가 못 되죠. 그러니까 여러 분한테 사랑을 하지 마라, 돈을 벌지 마라, 무슨 욕심을 내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하되 하지 말라 이거죠. 힘이 없이 하라.

이 말을 해야 되겠군요. 어느 제자가 스승한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는 세상이 너무 복잡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토굴을 묻고 공부하겠습니다"

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 혼자 물을 마셨다고 하고 물을 안 마셨다고 하고 이렇게 이유가 붙습니까? 공생(共生)이면서 공심(公心) 공체(公體) 공용(公用) 공식화(供食化) 하고 돌아가는 이 살밭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터득하고 어디다가도 착을 두지 않으면서도 어디다가도 사랑하지 않고 자비로써 배울 수 있는 그 너그러움을 가져라. 이 런다면 일에 불은 사랑이 아니고 아주 정직하게 실천하는 자비죠.

지금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발명을 하고 발표를 하고 이랬지만 이 부처님 법이란 아주 심오하고도 묘하고 광대하고도 무변해서, 즉 말하자면 내가 누구든지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이 결과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연구해서 되고 어떤 것은 안되고 이런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 건지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 우주 삼라만상 대천세제도, 하 다못해 물 한 방울도 안 돼 보신 분이 아니다 이겁

## 내 마음이 주저주저하지 말고 마음대로 넘어설 줄 알아야 된다

30면으로 계속